

글 강지남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본 자료 발표자 이현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강사·보건학 박사
 임상희 새봄건강돌봄센터장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최인수 휴레이포지티브 R&D 팀장
 엘리자베스 킹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디자인 최정미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 리뷰 ③ 돌봄의 미래

모두가 할 수 있고 필요한 돌봄 사회적 연결에 주목할 때

청년, 공동체, 디지털에서 찾은 돌봄의 미래

본 센터는 2024년 9월 9~10일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를 주최했습니다. 2019년부터 돌봄 관련 여러 이슈를 연구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언해온 본 센터의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돌봄경제 전문가와 연구자, 돌봄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인구 변화와 돌봄 위기가 글로벌 사회에 많은 난제를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걱정과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센터가 주최한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는 마지막 세션의 주제를 ‘돌봄의 미래: 청년, 공동체, 그리고 디지털’로 정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돌봄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흡연보다 해로운 고독

우선 이현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강사·보건학 박사가 ‘사회적 관계와 건강’ 발표를 통해 신체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에서 사회적 관계까지 강화하는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망률이 50% 증가합니다. 만성적 심장 질환과 뇌졸중 둘다 1.3배 증가합니다. 이 박사는 “이는 하루 15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진행 중인 ‘아리랑 코호트’에서도¹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메타볼릭 신드롬(대사증후군)² 을 겪을 확률은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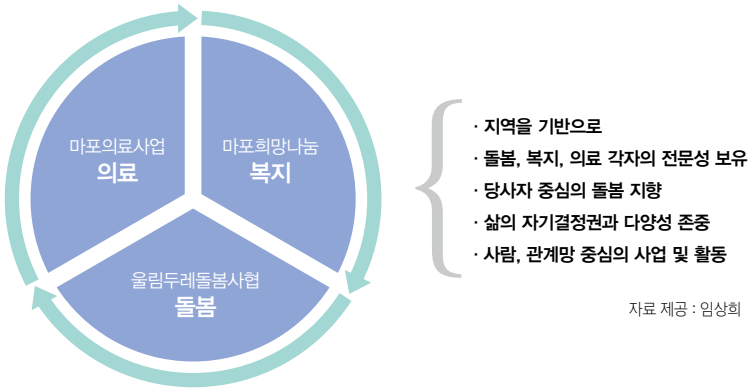
임상희 새봄건강돌봄센터장은 ‘지역통합돌봄 관계망의 사례: 새봄건강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지역 사회 기반 돌봄의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서울 마포 지역에서 돌봄 활동을 하는 3개 조직³ 은 각자 역할에 충실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2020년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봄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그림1 참조) 임 센터장은 “새봄네트워크는 안심하고 나이 드는 지역 건강돌봄 생태계를 지

1 강원 원주시와 평창군의 40세 이상 시골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장기 추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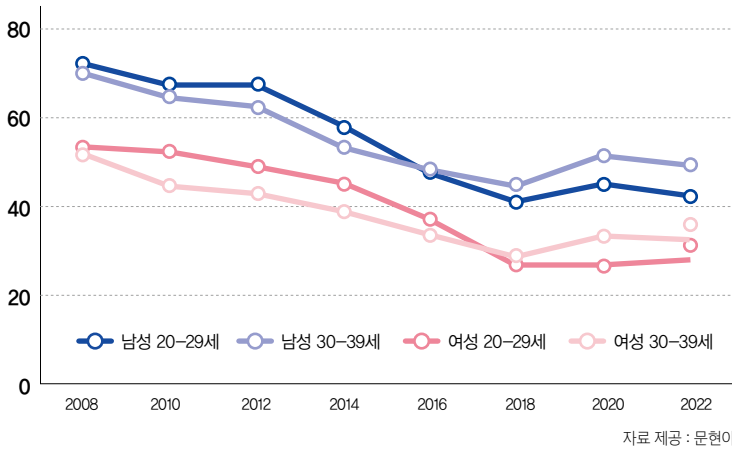
2 오랜 기간 몸 속 대사에 장애가 일어나 내당능장애(당뇨병 직전 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허리둘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5가지 건강지표 중 3가지 이상에 문제가 나타나면 메타볼릭 신드롬에 해당한다.

3 의료 활동을 하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복지 기관인 마포희망나눔, 고령자 돌봄 활동을 하는 올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그림1〉 새봄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돌봄



〈그림2〉 2030 청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



향한다”며 “커뮤니티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봄, 복지, 의료의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돌봄 중심 및 이웃과 커뮤니티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망 중심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봄네트워크는 2023년 12월부터 연세대 원주 의대,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휴레이포지티브, 에스엠디 등과 함께 ‘노화 인지 장기추적(코

호트) 및 지역사회기반 돌봄 관계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 사례 경험과 조사를 통해 돌봄 욕구와 기대를 파악해 지역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임 센터장은 “지역사회 돌봄의 해답을 탐색하고 대안과 전망을 엮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삶-돌봄의 균형과 공동체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들려준 돌봄의 과거, 현재, 미래’ 발표를 통해 한국 청년들이 인식하고 원하는 돌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사실 돌봄 수혜자를 아동이나 노인으로 한정해선 안 됩니다. 한국 1인 가구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2%로 이들 중 대다수가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결혼 가능성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림2) 남성의 결혼 의사는 2008년 70% 수준에서 2022년 50% 안팎으로 크게 낮아졌고, 2008년 50%로 낮았던 여성의 결혼 의사는 2018년 이후 40% 이하로 더욱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 연구원은 심층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의 돌봄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라온 경험을 공유하며 돌봄을 이유로 한 일방적 희생이나 성별 역할 구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돌봄 실천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한 여성은 “나를 낳고 일을 그만 둔 것을 한처럼 느끼는 어머니를 보고 꼭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학생 때는 아예 결혼이 하기 싫었다”고, 1998년생 남성은 “자녀 육아를 내가 다 할 자신이 있지만, 아빠가 육아를 한다는 주변 시선이 걱정”이라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
세션3에서 최인수
휴레이포지티브 팀장이
청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1999년생 여성은 “결혼은 싫지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 결합제도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1996년생 남성은 “가족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이상하다. 충분히 친하다면 돌봄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누구나 돌봄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있고 일과 삶, 돌봄이 함께 존재하는 균형 잡힌 삶을 꿈꾸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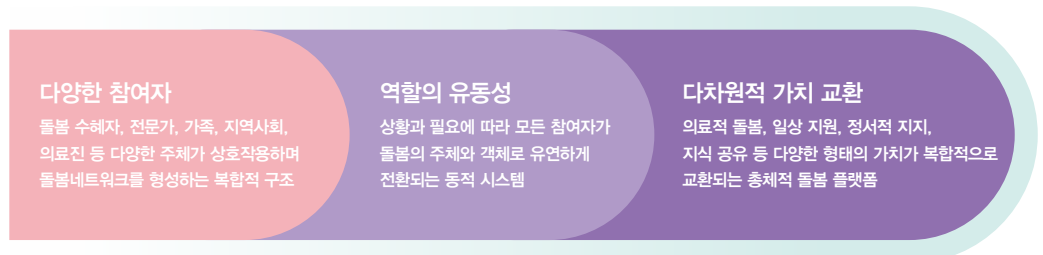
밝혔습니다.

모두가 참여해 다양한 역할 소화

돌봄의 미래를 탐색해볼 마지막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숫자가 크게 늘고 돌봄 인력은 부족해지면서 이 격차에서 오는 문제를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인수 휴레이포지티브 R&D 팀장은 “돌봄을 단

<그림3>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



자료 제공 : 최인수

엘리자베스 킹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최인수

휴레이포지티브 R&D 팀장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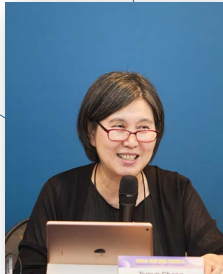
임상희

새봄건강돌봄센터장



이현주

연세대 원주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강사·보건학 박사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2024년 9월 10일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 세션3의 발표자와 토론자들.

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가치 창출의 기회’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먼저 주문했습니다. (그림3) 가족과 지역사회, 전문가 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 자신도 돌봄에 참여하고, 상황에 맞게 모두가 돌봄 수혜자/제공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여러 가치를 활발하고 복합적으로 교환할 때 튼튼한 돌봄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팀장은 “이러한 돌봄 생태계에서 기술은 똑똑한 연결고

리이자 건강 모니터링 역할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팀장은 상호 가치 교환의 돌봄 생태계를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유럽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타츠도르프 자위드 Stadsdorp Zuid’는 상호호혜성과 지역 사회 연대를 가치 기준으로 삼고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해

코디네이터를 통해 매칭을 받습니다. 일례로 65세의 은퇴 건축가 회원은 집 수리를 제공하고 이웃으로부터 식사를 배달 받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반코스 델 티엠포Bancos del Tiempo’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크레딧을 저축 및 인출하는 시간은행입니다. 주 4시간 뜨개질 강습을 하고 같은 시간만큼 장보기나 집안을 도움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굿짐GoodGym’은 자원봉사와 운동이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러닝 루트 내 지역 주민을 방문해 봉사를 수행합니다. 일례로 28세의 사라 존슨은 주 2회 달리기를 하며 90세 독거 노인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사회적 교류를 합니다.

미래 돌봄, ‘연결’에 달렸다

세션3의 토론자들은 청년, 지역사회, 디지털을 키워드로 탐색한 돌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엘리자베스 킹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션 3의 4개 발표 모두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

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치료에만 집착해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여러 분야가 함께 참여해 다학제적 방식으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고 장기요양수급 대상 노인은 2027년에 147만 명이 된다. 때문에 효율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며 “그러나 단순히 기술 활용을 통한 효율성에 집중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커뮤니티와 상호 호혜성 등 중요한 키워드를 얻어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본 대표는 “청년을 생산인구로만 보지 않고 돌봄의 주체로 바라보는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연구가 매우 반가웠고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돌봄의 주체이고,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지나치게 시설화, 병원화 되어 있는 돌봄을 지역사회와 주변 관계망을 통해 통합 돌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 참여한 돌봄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들.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돌봄은 사회적 산소,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도록

2019년 문을 연 본 센터는 지난 5년 간 돌봄과 관련한 여러 이슈를 연구하며 올해를 포함해 총 4회에 국제 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돌봄 컨퍼런스는 세계 유수의 돌봄경제 전문가와 연구자, 돌봄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로 역할해왔습니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글로벌 인구 변화의 실태를 분석·조망하고, 돌봄경제의 중요성을 제언하고, 이주 돌봄 노동자 현실 개선책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탐색해왔습니다. 은 기수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여러 영역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토론을 이어와 이제 돌봄 연구 및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시점에 도달한 것이 지난 5년 간 본 센터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돌봄은 사회의 산소입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 안 될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지만, 돌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제공하기만 하는 것이 현재 돌봄의 현실입니다. 은 센터장은 폐회사를 통해 “돌봄은 일생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 하에 공동체와 테크놀로지, 미래 세대와 함께 돌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본 브리프는 2024년 9월 9~10일 개최된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의 둘째날 세션 1 ‘젠더와 돌봄: 성과와 도전’ 발표를 본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본 브리프의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